

29곳 단체장 중 친환경車 달랑 2곳뿐

광주·전남 지자체 관용 ‘1호차’ 전기차 이용 ‘나 몰라라’
시·도민 구매 독려 정책 정면 배치 “솔선수범해야” 비판

광주·전남지역 2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단 2곳만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를 단체장 전용 ‘1호차’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지자체는 여전히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1호차로 운행 중이어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친환경차 확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청과 시·군·구(22개 시·군, 5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1호) 총 29대 중 2대만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솔린)이다. 이 시장은 상황에 따라 넥소(수소차)도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1호차’로 보기는 힘들다.

5개 자치단체장(현재 기준)의 경우 서대석 서구청장이 니로 전기차,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 중이다. 반면, 임택 동구청장은 가솔린 카니발, 문인 북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은 디젤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도청 포함 23개 지자체의 ‘1호차’ 중 친환경차는 단 1대도 없다.

김영록 지사는 제네시스 EQ900(가솔

린)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22개 시·군 단체장들도 각각 체어맨W, 아슬란, 카니발, 제네시스, K9 등을 이용했다.

특히 도청 포함 23개 지자체 ‘1호차’ 중 경유(디젤) 차량은 총 12대(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장흥·영암·장성·완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전기차 물량 확보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6월 추경안을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를 428대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오승자·임후성 기자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 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개막된 ‘2021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인 미디어아트 캔버스가 화려한 빛과 함께 펼쳐지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5·18민주광장과 ACC 복합5관,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김애리 기자

병원·학교·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여전

방역당국 “확진자 줄지만 안심할 단계 아니다”

광주·전남에서 병원과 학교 등 일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개천절 연휴 여파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확산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3명(광주 14명·전남 9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

았다. 광주 확진자 11명 중 4명은 외국인이다. 남구 한 어린이집과 동구 대형 병원 관련 코로나19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집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원생(2명)·종사자(1명) 등 3명이 신규 확진자로 분류됐다.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9명이다. 이밖에 동구 소재 의료가

관 관련 2명, 광주 기확진자 접촉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5개 시·군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2명의 확진자는 외국인 사업자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으며, 광양·순천 확진자 2명은 건설사업장 관련 선제검사서서 확진됐다.

목포 확진자 2명과 광양 확진자는 기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목포 확진

자 1명은 유증상 검사자다.

앞서 전남 전남지역에서는 화순 한 고등학교 학생 17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지난 1일 해당 고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4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연쇄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자·임후성 기자

광주매일TV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생중계

- ▶ 10월 5일-7일, 13일 오전 10시...인터넷(www.kjdaily.com)
- ▶ 모바일(m.kjdaily.com) ‘광주매일TV앱’ 시청 가능

광주매일TV와 KCTV광주방송은 광주시의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 지적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TV는 10월 5일-7일(3일), 13일(1일) 4일간 진행되는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생중계합니다.

이런 광주매일TV의 시정질문 생중계를 통해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광주시의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 지적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TV의 광주시의회 임시회 생중계는 인터넷(www.kjdaily.com), 모바일(m.kjdaily.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KCTV 광주방송에서는 채널 5번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 ◇10월 5일 ... 일반시정 질의=김익주·장재성·박미정 의원
- ◇10월 6일 ... 일반시정 질의=이경호·정무창·임미란 의원
- ◇10월 7일 ... 일반시정 질의=김광란·장연주 의원
- ◇10월13일 ...교육행정 질의=김익주·장재성 의원
- ◇일 시 : 2021년 10월 5일-7일, 13일 오전 10시
- ◇문 의 : 062-650-2024, 062-417-5015

광주매일신문

대기업들, 농어촌상생기금 약속 ‘모르쇠’

목표액 대비 25.8%...이게호 “FTA 수혜 대기업들 책임 다해야”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상생기금’모금액이 목표액의 26%에 불과하고, 국내 15대그룹 참여액은 14%에 그치면서 모금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게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 8월 현재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1천293억 원으로 목표액 5천억 원의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동의 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 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총 1조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5년 차인 올해까지 목표액은 5천억 원이다.

기금 출연 대상기업은 모두 102개로 ▲대기업 49개 ▲중견기업 27개 ▲공공기관 26개로 민간기업들이 74.5%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금액은 ▲공기업이 888억 ▲민간기업은 340억으로 민간기업

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한 전체 출연금액 중 국내 15대 그룹이 출연한 금액은 182억 원으로 14%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KT, 한진그룹은 한 톨도 출연하지 않았고 ▲농협 8천만 원 ▲CJ와 두산그룹 각각 1억 원 ▲GS그룹 4억 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게호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을 보면 공공분야 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임에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생기금 설치의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농어민들에게 약속했던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리고 모금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그린뉴딜광주, 녹색교통도시선도 5면

은행들, 고령 고객 편의 외면 12면

KBO 유턴, 양현종의 선택은? 16면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지구의 전환, 숨쉬는 프린지

2021년 10월 8-10일

장소 전일빌딩 옥상, 5.18 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계단

주요공연팀 무드리스트(재즈), 이봉근과 적벽(국악), 빛고을 댄서스(스트릿댄스) 봄헤드&우카탕카(코미디 퍼포먼스)

※ 현장상황에 따라 공연 순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